

북녘 가족 만날 확률 659 대 1...설렘에 잠 못 드는 이산가족

한적, 오늘 500명 선정...내달 8일 최종 100명 확정

남측 생사 확인대상, 국군포로·남북자 등 250명

광주·전남 1541명 “이번엔 만나려나” 두근두근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은 제19차 상봉 이후 약 20개월만이다. 전체 상봉자는 남한과 북한 각 100명씩, 모두 200명으로 확정됐다.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9일 인선위원회와 컴퓨터 추첨을 통해 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8일 최종 상봉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8일 상봉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지역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기자 1541명도 가슴을 졸이며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늘 5배수 추첨...최종 경쟁률 659 대 1=한적은 9일 컴퓨터 추첨을 통해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오전 10시30분 적십자사 본사에서 인선위원회를 열어 선정 기준을 결정한다. 선정 기준이 정해지면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적십자사 본사 강당에서 컴퓨터 추첨으로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뽑는다.

한적은 “인선위원회 전에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동안 고령자와 직계가족 우선 원칙 등을 적용해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해왔다”고 밝혔다.

한적은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기자가 6만590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청 대기자가 1차 후보자 500명에 포함될 확률은 131.8대 1,

최종 상봉자 100명에 들어갈 확률은 659 대 1이다.

9월 1차 상봉 후보자가 확보되면 다시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2배수로 줄이고, 남북당국은 오는 15일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다음달 5일에는 생사확인 회보서를, 같은 달 8일에는 최종명단을 선정해 명단을 서로 통보하게 된다.

우리측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250명, 북측은 200명이다. 우리측이 50명 많은 이유는 국군포로와 남북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된 남측 상봉 대상자 100명은 동행 가족(1~2명)과 함께 상봉 하루 전날인 다음달 19일 강원도 속초 속소에 모여 통일부 주관으로 열리는 사전 교육을 받게 된다. 상봉은 다음달 20~26일 7일간 2박3일씩 1, 2차에 나눠 진행된다.

◇광주·전남 대기자 1541명 기대감...“로또보다 힘든 것 같다”=광주·전남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은 ‘혹시나’하는 마음에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 때 함경남도 정평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온 김성연(83·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남북의 실무회담 소식을 듣고 며칠 전부터 한적에 전화를 걸어 서류가 제대로 접수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김씨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고향땅을 밟고 가족을 만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



8일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 신청소를 찾은 유영석(80)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북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연합뉴스

데, 15년 넘게 상봉 명단에 포함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상봉을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마당에 이제 외서는 되면 되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한적이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 지역 이산가족 상봉 신청 대기자는 광주 624명,

전남 917명 등 모두 1541명이다. 전체 신청 대기자 6만5907명 중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북5도민회 광주시연합회’가 주장하고 있는 광주지역 이산가족은 1세대 생존자를 포함해 모두 2만5000여명이다. 이마저도 1세대 생존자의 상당수가 70~80대 고령인 탓에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실명이다.

실제 지난 2005년 8월 말 기준으로 광

주·전남 신청 대기자는 모두 2275명이었지만 10년 사이 모두 734명(광주 272명·전남 462명)이 줄어들었다.

평안북도 용천이 고향인 박기관(83·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마음이 착잡하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하지만 로또 복권 당첨보다 힘든 것 같다”며 “100명씩 해서 어느 세월에 가족들을 만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아쉬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북국회회담 성사될까

여야 추진협력 합의

여야가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는 앞서 이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 등을 제안한 데 대해 여당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남북국회회담은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다’는 취지의 합의문 문구까지 조율을 마쳤으나 최종 합의문에 담기지는 못했다. 발표에 앞서 올해 들어 남북국회회담을 제1일 먼저 제안했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의논을 하고자 했으나 회동이 끝날 때까지 정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정 의장은 당시 국군모범용사 가족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남북국회회담 관련 내용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 일정으로 인해 회동이 불발됐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어제 거의 다 합의가 다 된 상태”라면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2~3일 내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대법 “한국 거주 원폭 피해자 치료비 지급해야”

첫 판결...정부 실태조사 시급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 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본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용현씨 등 3명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씨 등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원폭피해자 단체들은 일본의 전향적 판결을 환영하며 한

국 정부도 늦었지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대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광복 후 7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실태조사가 없어 한국 원폭 피해자의 숫자는 누구도 정확히 모른다”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일본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은 7만 명으로 이중 4만 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협회가 지난 1978년 피해자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등록된 전체 피해자 9362명 중 호남 출신은 758명으로 확인됐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광주·전남지역엔 2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 연합뉴스

광주 첨단3지구 개발 사업 본격화

시, 토지이용 계획 수정 의회 의결만 남아...2017년 착공

광주의 최대 산업단지가 될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계획을 일부 수정해 최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발사업 동의를 받아 10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여㎡를 1, 2단계로 나눠 2025년까지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보상비 466억원을 비롯해 공사비 3746억원 등 1조217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첨단3지구는 정부연구개발특구인 만큼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 전자, 친환경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기전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3만 개, 지역경제 파급 효과 6조8000억원 등 광주의 최대 산단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주춤한 데는 사업성을 이유로 애초 6%에 불과했던 주택용지 비율을 23%로 높이면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나후면 도심지역 재생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

모 신(新)택지개발은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택지매각에서 본 이윤으로 산업용지를 원가이하(60%)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23%인 주택용지 비율을 17.3%로 낮추고 산업용지를 31.9%에서 39.4%로 높이는 것으로 수정,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또 일부 부족한 재원은 200억원대 국비를 확보, 진입도로 개설, 폐수처리장 지원 등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이달 중으로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실시계획수립, 보상절차 등에 들어간 뒤 2017년 착공할 계획이다.

공사는 1.2단계로 나눠 우선 20121년까지 246만여㎡를 개발한 뒤 나머지 134만여㎡는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슈퍼다시마’ 이식 성공

바다 사막화 차단·생태계 복원

섬씨 27도 수온서도 성장 가능

바다사막화를 막고 연안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슈퍼다시마’가 성공적으로 바다에 이식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 신품종인 슈퍼다시마를 일반 다시마보다 2배 이상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슈퍼다시마는 지난해 10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와 중국 관요해양개발유한공사가 공동 개발한 해조류 신품종 ‘전관 1호’이다. 섬씨 27도의 높은 수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다.

슈퍼다시마는 전복·소라·해삼 등 수산생물의 먹이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 서식처·산란장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30, 19
사회	국제한국어교원학과 5, 2
사범	사회복지상담학과 27, 3
	유아교육과 17, 3
예능	음 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5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9. 9(수) ~ 15(화) · 전형일 : 2015. 10. 2(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8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 · 성범죄 · 교통사고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대여금 · 공사대금 · 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公國
認家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9:20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명):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명):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